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록과 성경, 14회차, 신약성경의 특별계시, 성경, 주요 구절, 마가복음 12:35-37, 요한복음 10:35

© 2025 로버트 피터슨 및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신약의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주요 구절, 마가복음 12:35-37, 요한복음 10:35.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며, 우리를 위해 특별히 당신의 말씀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생각한 것을 연구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격려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창조, 양심, 역사에서 일반 계시와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특별 계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런 다음 신약에서 성육신으로서의 특별 계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있는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합니다. 특별 계시의 필수적인 형태는 성경입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근원이며, 특별 계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한 연구를 다섯 가지 핵심 구절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저는 그저 언급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35-37과 요한복음 10:35.

성경은 깨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37과 38,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가장 유명한 두 본문, 디모데후서 3:14-17과 베드로후서 1:16-21.

마가복음 12장은 시편 110편을 기반으로 하므로 먼저 거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때때로 다윗이나 시편 기자는 오실 그리스도의 유형, 그의 인격에 대한 예표입니다. 때때로 시편의 문장, 절 또는 구절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는 예언 성취 모티브로 사용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합법적입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여기에는 다양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때로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자, 의로운 고난받는 자이며, 신약은 그 일이 성경의 전체 그림에서 전개되는 방식이 그 의로운 고난받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고난받는 자의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시편은 있지만 순수하게 메시아 시편은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저와 제가 그들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몇몇 존경받는 구약 학자들의 의견은 시편 110편이 그러한 시편,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주께서 시온에서 네 강력한 흠을 보내시니, 네 원수들 가운데서 통치하라.

당신의 백성은 당신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기꺼이 자신을 바칠 것입니다. 아침의 태에서 당신의 젊음의 이슬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니라. 주께서 네 오른편에 계시니, 그는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산산이 부수실 것이다.

그는 나라들 사이에 심판을 집행하여 시체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는 넓은 땅의 족장들을 산산이 부술 것이다. 그는 길가의 개울에서 물을 마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머리를 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사실은 일이 전개되면서 중요한 것으로 드러난다. 신약성서도 시편 제목처럼 그것을 그렇게 식별한다.

주님은 나의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신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대문자로 쓰인 주님, LORD는 야훼로, 구약성서에서 신의 언약적 이름이며, 테트라그라마톤으로 , 오직 그리고 항상 신 자신에 대해 사용됩니다.

여기 주님은 아도나이입니다. 여기 주님은 아도나이입니다. 그것이 전개되는 방식은 주 야훼와 주 아도나이 사이에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Adonai는 때때로 천사와 인간, 인간 군주, 천사적 존재에게 사용되며, 이 맥락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사용되기는 하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야훼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주님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오른편에 앉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으로 삼고 네 원수를 물리칠 때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예와 권위의 자리입니다.

고대 비문 등은 다른 왕의 머리 위에 발을 올려놓은 왕의 그림을 보여주며 , 그 의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네 원수를 물리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문제는 시편 제목과 신약성경이 다윗의 시편을 증거하듯이, 왕국의 다른 이스라엘 사람, 유다의 남쪽 왕국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야훼와 야슈아, 야슈아, 야슈아, 야슈아 , 그리고 왕 , 다윗이라는 두 명의 주인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왕이 한 분뿐이며,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땅에 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그가 두 명의 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적어도 이상하고 기껏해야 암시적입니다. 심지어 예수가 이에 대해 해석하기 전에도 다윗이 두 명의 신성한 군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 야슈아, 야슈아, 야슈아는 다윗의 주님께 그의 오른편에 앉으라고 지시합니다. 명예와 권위의 자리, 겉보기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입니다. 주, 야훼는 다시 시온에서 강력한 흠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주를 대신하여 행동하십니다.

당신의 원수들 가운데서 통치하소서. 당신의 백성은 당신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기꺼이 자신을 바칠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이며, 다윗의 주께서는 그를 대신하여 싸울 신병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그를 위해 싸운다. 아침의 태에서, 당신의 젊음의 이슬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텍스트이며, 두 가지 가능성이 얻어졌다.

하나는 다윗의 주, 야슈아 주,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의 의미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의 태에서부터, 당신의 젊음의 이슬, 즉 전투에 자원하는 젊은이들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다윗의 주를 위해 싸우는 자원자들의 수는 태양이 내리쬐고 빛날 때 이른 아침에 풀 위에 반짝이는 이슬만큼이나 많습니다.

아침의 태에서부터, 아침의 시작에서부터, 당신의 청년 자원 봉사자들의 이슬, 청년 자원 봉사자들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3A가 말한 것을 반복합니다. 당신의 백성은 기꺼이 자신을 바칠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한 번역은 아침의 자궁에서 당신의 개인적 젊음의 이슬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해석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의미, 두 가지

의미 모두 시편 자체에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신학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3B, 3A를 반복하거나 3B가 7을 예상한다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개울에서 물을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머리를 들어올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프타임에 게토레이드를 말하는데, 말하자면 다윗의 주님이 적들과 싸우는 동안 그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의미는 이와 비슷합니다. 하루와 전투의 시작부터 당신의 젊음의 이슬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당신은 에너지와 수완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3B는 3A의 감각을 반복하거나 7의 감각을 예상합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 핑계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신학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주석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쟁할 것입니다. 주님은 맹세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번째 문단의 시작이나 두 번째 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번째 신성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맹세하셨습니다. 1절에서 제 주님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맹세하셨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며, 그런 다음 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두 가지, 1과 4는 모두 서론, 신탁에 대한 서론적 공식, 그리고 신의 직접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놀랍게도 주님은 맹세하셨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주님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오, 이걸 믿기 어렵습니다. 다윗의 주님은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2절과 3절에서 보여 주듯이 전사 왕이지만, 이제 그는 또한 제사장이예요? 믿을 수 없어요. 제사장과 왕은 구약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게다가 그는 영원히 제사장이예요.

그건 불가능해.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고,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이 그의 자리를 대신한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입니다. 뭐요? 이것 외에는 구약성경에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이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아무 데서나 나타납니다.

그는 왕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한 후 아브라함을 만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십일조를 바칩니다. 마치 그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칩니다.

주님은 맹세하셨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엄숙한 맹세입니다. 이번 신탁은 맹세입니다. 당신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다윗의 주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승리한 왕으로, 명예와 권위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또한 이 이상한 질서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4절, 그리고 히브리서, 특히 7장에 등장하는데, 그곳에서 그의 이름에 대한 큰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고, 등등. 의의 왕, 살렘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두 명의 제사장이 있는 반차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멜기세덱과 예수,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시편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투 모티브는 5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이것은 1절과 다릅니다. 1절, 다윗의 주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여졌습니다. 여기서 주님, 아도나이 또는 아돈, 하나님이지

테트라그라마톤이 아니고 야훼가 아니라 다윗의 오른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약함의 장소는 우리가 말하듯이 그의 등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있는 사람, 즉 주님 자신이 그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왕들을 산산이 부수고, 강한 말씀이 그의 진노의 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민족들 사이에서 심판을 집행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명한 조언에 따른 심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적을 학살하는 것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살은 나라들을 시체로 채우고, 쌓인 몸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는 넓은 땅 위에서 족장이나 지도자, 머리를 산산이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7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을 이 강력한 전투에 참여시키면서 젊어지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메시아적 시편으로 보고,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듣는 사람, 독자, 그리고 시편을 처음 낭송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해석이 맞다면, 이 시편이 갖는 의미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방문하시고, 또 다른 제사장직을 제공하실 것이며, 오실 분이 성공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것이고, 놀랍게도 동시에 왕과 제사장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구약 성도들에게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언급된 장소처럼 보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행할 일을 이해하기 위해 머리를 긁적거리며,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합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뜨거운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의 유대인 지도자들과 반대자들은 그를 쫓고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마가복음 12:35에서, 그는, 어떻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자신이 선포했지만, 주의하세요, 다윗 자신이 성령 안에서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두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자신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그의 아들이냐? 그리고 큰 무리가 기쁘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 즉 후손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신학적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 후손이라는 사실과 결합하기 어려운 또 다른 정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메시아의 인간성이 그의 신성에 대한 구약성경의 언급과 어떻게 들어맞는지 알고 싶어할 뿐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반대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물론 자신에 대해 가르치지만, 그는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윗 자신이 이 구절에서 이곳이 놀라운 곳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이것이 다윗의 말이라고 선언하지만, 다윗은 이 말을 성령 안에서 말합니다.

즉,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말은 동시에 성령의 말씀입니다. 오, 그것은 다윗의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이지만, 그것은 신성한 인간의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다윗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놀랍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두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주, 야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주라고 부르시고, 그의 오른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110편에 대한 설명에서 보았듯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두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으라.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어떻게 그의 아들이냐?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수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는 카이사르에게 인두세를 내는 것에 대해 바리새인과 헤로데 당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의 맥락입니다. 앞의 맥락에서, 내가 읽는 구절마다 더 직접적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 논쟁하며 가장 큰 계명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예수께서는 카이사르에게 인두세를 내는 것에 대해 바리새인과 헤로데 당원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는 부활을 부인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 서기관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마주보셨습니다. 서기관이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 자신이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주께서 내 주께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두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 자신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의 적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즉 인간이 될 것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는 메시아의 인간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의 적들에게 추가적인 진실을 다루게 합니다.

메시아는 또한 신성합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을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님이 다윗의 주님, 메시아, 나의 주님에게 메시아의 적들을 물리칠 때까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다윗 왕은 두 분을 주님, 하나님,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지적했듯이, 다윗은 왕으로서 단순한

사람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인간 주님, 왕,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는 논쟁을 종결시킨다. 나는 전에 잘못 말했다. 물론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 남 왕국의 왕은 아니었다.

솔로몬의 죽음과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사이의 분열이 뒤따릅니다. 사과드립니다. 예수께서 37절에서 논쟁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메시아, 곧 오실 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큰 무리는 예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교사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을 듣는 것을 즐깁니다. 우리는 그 즐거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나 동기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의 인간 저자임을 인정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을 썼습니다. 시편 제목이 말하듯이, 예수님은 또한 성경의 신성한 저자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시편 110편을 말합니다.

기독교 표준 성경, ESV, 성령 안에서. 둘 다 전치사, 그리스어 전치사, en 의 허용 가능한 번역입니다 . in을 의미할 수도 있고, by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to show, instrumentality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다윗이 글을 쓴 주체입니다. 마태복음 22:43의 평행 구절에 대한 Christian Standard Bible의 번역은 그 의미를 포착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즉, 성령은 의역에 가까운 해석이지만 제가 그 구절의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시편 110:1은 단순히 다윗 왕의 작품이 아니다. 성령은 또한 글쓰기 과정을 인도한다. 성경에는 신성한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

다음 구절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선한 목자 담화에서 예수께서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주장하셨음을 보았습니다(요한복음 10:30, 문맥 상, 양을 안전하게 지키는 능력, 신성한 보존의 일을 하는 능력,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유지하는 능력). 요한복음 10:31,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서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선행을 너희에게 보였다.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이니, 너희가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이라 하였으니 성경은 폐할 수 없거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이를 너희가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니?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하면 비록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 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고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또 그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구절의 중요한 배경으로 구약성경 시편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편 82편이다.

이것은 요한 복음서의 어려운 구절이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가 그의 반대자들의 규칙에 따라 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절대적인 진실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그는 어떤 거짓도 보여주지 않지만, 그는 그들의 규칙에 따라 놀고, 말하자면 그는 그들의

게임에서 그들을 이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의 인격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전인 그들의 경전을 사용하여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82편은 짧고, 저는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삽의 시편입니다.

신은 신성한 협의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신들, 소문자 g, 그리고 복수형 가운데서 그는 심판을 말합니다. 신은 신성한 협의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신들 가운데서 심판을 행한다. 언제까지 너희가 불의하게 심판하고 악한 자에게 편애하겠느냐? 악하고 고아에게 공의를 베풀고, 괴로움을 당하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켜라.

악하고 궁핍한 자를 구출하라. 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라. 너는 지식도 없고 이해력도 없구나.

그들은 어둠 속을 돌아다닙니다. 실례합니다. 그들은 지식도 없고 이해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을 돌아다닙니다.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립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신들이니라.

소문자 g와 복수형.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들아, 너희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처럼 너희도 죽고 어떤 왕자처럼 넘어질 것이다.

일어나서, 오 하나님이시여, 땅을 심판하소서. 당신은 모든 민족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문맥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의 신성한 법정에서, 그의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에서, 그의 자리에 서 있는 지상의 인간들 때문에 불쾌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왕인지 왕자인지, 아니면 행정관인지, 지상의 재판관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어떤

경우든, 그는 그들이 해야 할 정의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불쾌해 하십니다. 그들은 불의하게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난한 대표자들입니다(2절). 그들은 뇌물을 주는 악한 사람들, 아마도 악한 부자들에게 편애를 보입니다.

그리고 신은 그들에게 악하고 고아에게 정의를 베풀고, 고통받는 자와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악하고 궁핍한 자를 구출하고, 그들을 사악한 자의 손에서 구출하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이 재판관이나 통치자들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는 그저 그의 이름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통치하는 사악한 인간들을 폭파할 뿐입니다. 그는 그들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6절에서 나는 너희가 신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라 말했습니다 . 그런 말은 저에게는 왕처럼 들리지만, 구약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신학자들은 겸손해야 하고 구약과 신약의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너희도 죽고 어떤 왕자처럼 넘어질 것입니다.

일어나시어, 오 하나님, 땅을 심판하소서. 당신께서 모든 민족을 유업으로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은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규칙에 따라 놓고 그들이 승인할 방식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여 다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 담화를 마치며, 그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서 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많은 선행 중 어떤 것에 대해 돌로 치려는지 묻습니다(32절).

그들은 선행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에 그를 돌로 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면서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33절). 그런 다음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논증을 사용하여

자신이 신성모독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편 82편을 인용하는데, 그 시편에서 주님은 사악한 이스라엘 치안판사들이 악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이용함으로써 부정직하게 처신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자신이 그들의 심판자이며, 그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상기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십니다. 소문자 g는 그들이 땅에서 자신의 자리에 서서 동료 인간에게 정의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저는 Alan P. Ross의 시편 주석, 2권, 5~26 페이지에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주장을 사용하는데,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으로 갑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것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그 전에 유대인들이 사용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 하느님이 단순한 인간을 신이라고 부르실 것이라면, 덜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것에서 더 작은 것으로, 또는 더 기술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어려운 것에서 더 쉬운 것으로의 주장입니다. 주장은 다음과 같으며, 예수님은 예를 들어 산상 수훈에서 같은 주장을 사용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일을 하신다면, 그는 산상 수훈에서 더 쉬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신이 당신에게 몸과 건강을 주신다면, 당신의 몸을 입힐 옷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신이 단순한 인간, 통치자 또는 판사, 지상의 판사를 신이라고 부르신다면, 예수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덜 어렵죠. 세상에.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단순한 인간을 신이라고 부르신다면, 덜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부르실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본격적인 가르침이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하면서 그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한 모든 진실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를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확실히 무장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눈에 보면 예수는 신성을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아버지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분을 언급할 때 자신의 선재와 성육신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연히도 그는 자신의 신성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0:36 ESV에서, 당신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분에 대해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는 선재했다. 그는 봉헌되어 세상에 보내졌다. 그러므로 그는 신성하다.

이것이 이 글의 초점이 아닙니다. 이 글의 초점은 그들을 그들 자신의 함정에 빠뜨리고, 그들이 반응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경에서 추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신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좋은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실 때 권위 있는 구약을 언급하십니다. 성경은 깨질 수 없습니다(35절). 그는 34절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언급함으로써 깨졌다는 단어의 해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것이라 하였음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는 율법으로 오경이 아니라 구약성경과 시편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34절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언급하시고 35절에서 시편 82편을 인용하심으로써, 성경은 어길 수 없다는 표현에서 어긴다는 단어의 해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의 오경에서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시편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 여기셨고, 따라서 그 중 어느 것도 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긴다는 것은 마치 권위가 거의 없는 것처럼 무효화되거나 가볍게 제쳐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는 구약 전체가 권위적이라는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가르칩니다. . 예수는 또한 구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는 그것을 신학적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로 여깁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권위를 확인하신 것은 그 영감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신학이 유대 지도자들과 그가 벌이고 있는 논쟁과 같은 논쟁을 해결하는데 권위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의 영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주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많은 구절 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책은 John Wenham , *Christ and the Bible* 입니다 . 이 책은 이제 3판이 나왔고, John Wenham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아들은 구약학자이고 신약학자인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존 웬햄은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견해를 연구하고, 그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고, 신학과 윤리에 권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두로 영감을 받은 계시로 여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복종하고 지상 생활 내내 순종하셨습니다. 웬햄의 요약은 반복할 가치가 있으며, 저는 *Christ and the Bible* 에서 인용했습니다 . 존 웬햄은 " 그리스도께 구약은 참되고, 권위 있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구약의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셨고, 구약의 가르침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는 자신의 가르침과 사도들이 가르친 영의 가르침이 참되고, 권위 있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그가 말한 것을, 그들은 영의 인도 아래서 말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그와 그들이 말한 것을, 영의 인도 아래서 말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신약의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셨고, 원칙적으로 신약의 가르침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시편 110편을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셨고, 다윗이 말했을 때 그는 성령으로 말했고, 여기서 예수께서는 성경이 깨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 권위를 확인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이러한 핵심 구절 중 일부를 계속 연구하면서 성경 교리를 특별 계시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계시와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 이것은 세션 14, 신약의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핵심 구절, 마가복음 12:35-37, 요한복음 10:35입니다.